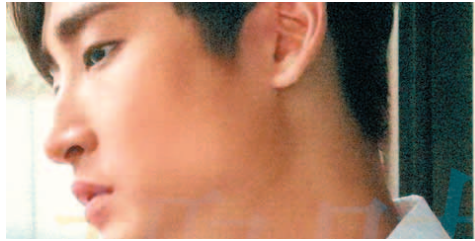


박재정 '가창력 재발견'



원슈타인 '피쳐링 0순위'



이동휘 '내친김에 앨범'



“비 맞고 산 속 질주, 제대로 고생”

지진보다 빠른 사나이, 겨울 셀카 대가...  
 알쏭달쏭한 별명의 주인공은 배우 지진희(50)이다. “지진과 명칭이 비슷한 팬 커뮤니티(지진희 갤러리)가 기상정보보다 빠르게 소식을 전한다”며 기빠하고, 범상치 않은 각도로 거울에 얼굴을 비춰 찍은 사진을 SNS에 우르르 올리는 바람에 얻은 것이다. 이처럼 평소에는 “철철 넘치는 인간미와 엉뚱함”이 가득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180도 확 달라진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60일, 지정생존자), 국정원 요원(언더커버), 사망자의 흔적을 정리하는 유품정리사(무부 투 헤븐: 나는 유품정리사입니다) 등을 연기하면서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끌어왔다. 4일 방송을 시작한 tvN 수목드라마 ‘더 로드:1의 비극’(더 로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방송사 뉴스 앵커 역할을 맡아 아들의 유괴사건과 그에 맞물린 재벌가의 비리를 파헤친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의 이면”을 또다시 깊게 파고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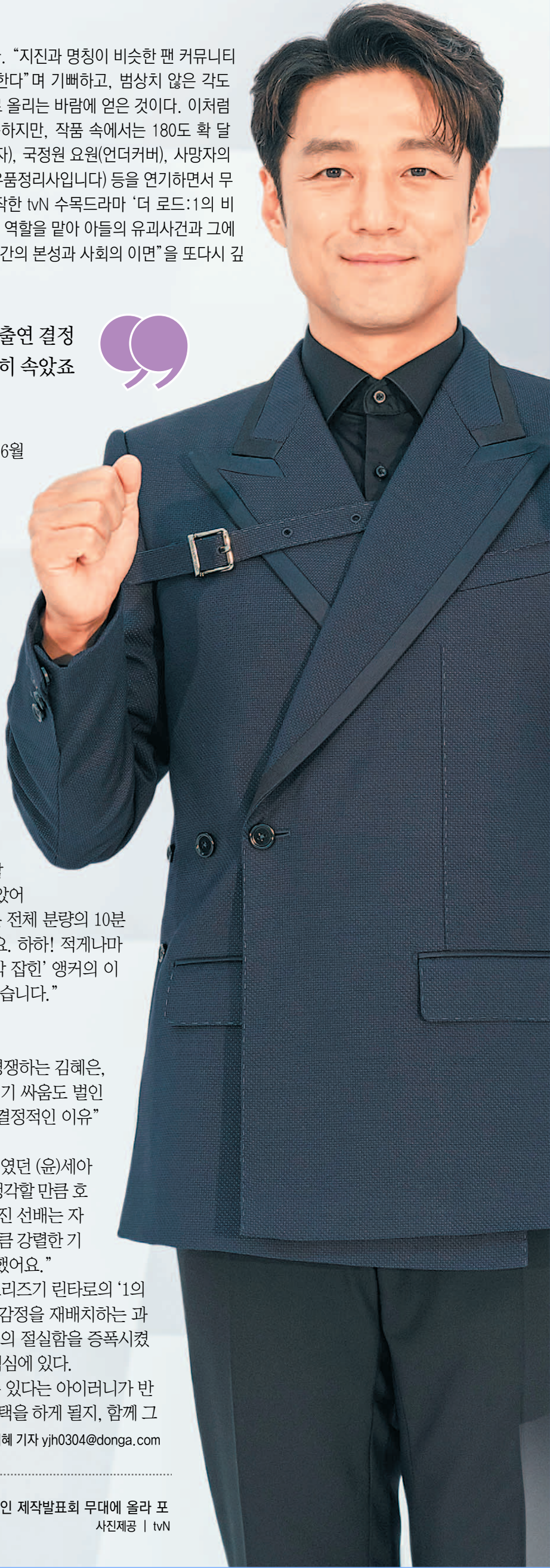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휴식 마다하고 출연 결정 앵커 역할이라 편할 줄 알았는데...완전히 속았죠



●“휴식도 접게 만든 이야기의 힘”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 드라마다. 지진희는 6월 JTBC ‘언더커버’를 마치고마자 쉴 틈 없이 ‘더 로드’ 현장으로 향했다. 이날 첫 방송에 앞서 온라인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그는 “이렇게 쉬지 못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돌아섰다.  
 “사실 조금은 휴식을 취하고 싶었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표현될지 궁금해 못 견디겠더라고요. 연출자 김노원 PD의 자신감도 크게 와닿았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체 보여주지 못한 거칠고 강인한 면모를 드러내는 캐릭터라 일종의 도전으로 여기기로 했습니다.”  
 앵커 역할이라서 “편하게 촬영하겠다”고 내심 기뻐했지만, 촬영 초반 기대가 와장창 깨졌다고 한다. “아들을 찾기 위해 비를 맞으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산속을 질주하는 장면만 즐기게 찍었다”며 웃었다.  
 “실내 스튜디오에서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을 쐬고, 추울 때는 히터 틀면서 촬영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웬걸! 스튜디오에 앉아있는 시간은 전체 분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거 있죠? 완전히 속았지 뭐예요. 하하! 적게나마 등장하는 뉴스 장면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각 잡힌’ 앵커의 이미지를 조금 틀어서 자연스러운 면모를 강조했습니다.”

●“윤세아와 부부 재조출, 최고”  
 극중 아내 역의 윤세아, 메인 앵커를 놓고 경쟁하는 김혜은, 장인 천호진 등 개성 강한 출연자들과 팽팽한 기 싸움도 벌인다. 지진희가 “쉬지 않고 다시 현장으로 향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2009년 미스터리 영화 ‘평행이론’에서 아내였던(윤세아 씨와는 ‘다음에는 멜로로 만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호흡이 좋아요, 재벌 총수 캐릭터로 나오는 천호진 선배는 자칫 ‘내 캐릭터를 잃을 수도 있겠다’고 긴장할 만큼 강렬한 기운을 뿜어내시죠. 더욱 정신 바짝 차리고 연기했어요.”  
 드라마는 일본의 유명한 미스터리 소설가 노리즈기 린타로의 ‘1의 비극’을 원작으로 했지만, “국내 정서에 맞게 감정을 재배치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분위기를 냈다. “각 캐릭터의 절실함을 증폭시켰다”는 김노원 PD의 말처럼 지진희가 변화의 핵심에 있다.  
 “내가 찾은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반전의 재미를 줄 것이라 확신해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함께 그 길을 걸어보지 않으시렵니까? 하하하!”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배우 지진희가 4일 오후 tvN '더 로드:1의 비극'의 온라인 제작발표회 무대에 올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tvN



프로젝트 그룹 MSG워너비의 인기가 지속되면서 가수 박재정과 원슈타인, 연기자 이동휘 등 멤버들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그룹을 배출한 MBC ‘놀면 뭐하니?’가 지난달 17일 스페셜 편을 마무리하며 이들의 프로젝트 활동 역시 모두 끝났지만, 인기는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MSG워너비가 부른 ‘바라만 본다’가 각종 음원차트에서 5주째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재정은 최근 ‘재발견 스타’로 주목받으며 본업인 솔로가수로써 입지를 구축해나가고 있다. 최근 더블 싱글 ‘취미’를 발표한 그는 음악프로그램은 물론 ‘나 혼자 산다’ 등 예능프로그램에도 얼굴을 자주 내밀며 시청자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취미’의 뮤직비디오엔 MSG워너비로 함께 활동했던 이동휘가 우정 출연해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원슈타인도 최근 열풍에 힘입어 ‘대세 래퍼’로 화제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싱글 ‘거미줄’로 데뷔한 그는 지난해 앨범 ‘합합 오디션’으로 ‘쇼미더머니9’에서 6위에 올라 시선을 끈 데 이어 올해 최고 정점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출중한 랩 실력으로 동료 가수들의 피쳐링 섬의 0순위로 꼽히며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솔, 엑소의 디오, 수란 등이 신곡을 발표하며 원슈타인에게 피쳐링을 맡겼다.  
 가수가 아닌 연기자로 시청자와 만나는 이동휘도 MSG워너비의 인기 바람을 타고 14일 첫 솔로 음원을 내놓는다. 이날 신곡 ‘네가 아는 너’를 발표하는 이동휘는 솔로가수로서는 처음으로 팬들 앞에 선다.  
 그룹 토이 출신 가수에서 프로듀서로 변신한 변재원 PD와 황성제 작곡가가 데뷔를 도왔다. ‘네가 아는 너’는 두 사람의 편집 앨범 프로젝트 ‘아 유 데어(are you the re)’에 담긴 세 번째 곡으로, 쉽고 리드미컬한 사운드와 이동휘 특유의 진장스러운 바이브레이션이 어우러진다. 소속사 키이스트에 따르면 이동휘는 직접 작사에 참여해 평소 자신이 느끼는 패션에 대한 철학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정연 기자 annjoj@donga.com

연예뉴스 HOT 5

박수홍, 데이트 폭력 주장한 유튜버 고소



박수홍

개그맨 박수홍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해 폭로성 주장을 내놓은 일부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4일 “박수홍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일부 유튜버와 그에게 허위 제보한 신원미상의 제보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일부 유튜버의 주장으로 박수홍의 방송 및 연예활동에 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유튜버는 최근 박수홍의 ‘데이트 폭력’ 등을 주장했다.

블랙핑크, 친환경 소재 MD 상품 공개 눈길



블랙핑크

8일 데뷔 5주년을 맞는 그룹 블랙핑크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MD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이들은 고무 탄성의 플라스틱인 TPU 소재를 비롯해 친환경 소재의 MD상품을 6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선보인다. 이들은 TPU 소재에 직접 그린 그림과 손글씨, 반려동물 캐릭터 디자인 등을 녹여냈다. 평소 기후 변화 대응 등 친환경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은 토트백과 멀티파우치 등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내놓는다. 블랙핑크는 4일 데뷔 이후 5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핑크 더 무비’를 국내외에서 개봉했다.

안성기, 후배 정우성·이정재와 한술밥 먹나?



안성기

배우 안성기가 후배 정우성·이정재와 한술밥을 먹은 가능성이 제기됐다. 4일 정우성과 이정재가 이끄는 매니지먼트사인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안성기와 전속계약을 두고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기는 그동안 특정 소속사에 적을 두지 않고 활동해왔다. 안성기는 두 사람과 선후배의 우정을 다져 온 신뢰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티스트컴퍼니는 정우성·이정재가 2016년 설립한 회사로, 이들을 비롯해 염정아, 박소담, 고아라, 이솜 등 배우들이 소속돼 있다.

김재중, 코로나19 대유행에 일본 투어 중단



김재중

가수 김재중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결국 일본 투어 계획을 중단했다. 4일 김재중은 일본 공식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J-JUN LIVE TOUR 2020 BREAKING DAWN’ 공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객의 안전을 확보해 개최하려 조정을 계속해왔다”면서 “현재 일본의 국제적인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단계적 조치가 해제되지 않았다. 공연 예정 지역에 긴급 사태가 선언되는 등 여전히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중은 지난해 10~12월 관련 투어를 예정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한 바 있다.

‘마인’ ‘눈길’ 연출한 이나정 감독 할리우드행



이나정 감독

tvN 드라마 ‘마인’과 영화 ‘눈길’ 등을 연출한 이나정 감독이 할리우드에 진출한다. 4일 영화 해피마케팅사 확인 킷에 따르면 이나정 감독은 최근 미국 브릴스테인 엔터테인먼트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이 회사는 브래드 피트와 그가 이끄는 영화제작사 플랜 B, 배우 애덤 샌들러 등을 매니지먼트하고 있다. 브릴스테인 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마인’을 보고 이 감독의 재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나정 감독은 “극적 과 언어 등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잘 나가는 이용진·조세호·황광희... ‘유재석 라인’ 기세등등

이용진, 채널A ‘애로부부’ 등 활약 황광희, 10일 첫선 ‘탈라랜드’ 나서

개그맨 유재석과 호흡을 맞추면서 이름값을 높인, 이른바 ‘유재석 라인’의 기세가 무섭다. 개그맨 이용진·조세호, 방송인 황광희이다. 유재석이 ‘감각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던 이들은 최근 자신들의 이름을 내건 예능 콘텐츠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방송사 안팎에서 진행자로서 입지를 새롭게 넓히는 계기도 맞았다. 이용진은 각종 플랫폼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현재 방영 중인 채널A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 채널S ‘진

과 함께’,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티빙의 ‘환승연애’에 참여하고, tvN 유튜브 콘텐츠 ‘터키즈 온 더 블럭’(터키즈)은 단독 진행한다.  
 ‘터키즈’로는 화제물이어도 성공했다. 유재석이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유퀴즈)을 패러디한 토크쇼이다. 사이먼 도미닉, 신기루 등 스타들뿐 아니라 현장에서 즉석으로 섭외한 비연예인 출연자들과도 거침없이 이야기를 나눠 공개한 달만에 최고 200만뷰를 넘겼다. 기존자로서 겪은 경험담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애로부부’와 연애 예능프로그램인 ‘환승연애’에서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조세호는 KBS 유튜브 콘텐츠 ‘조세호

의 와인바’, iHQ ‘별에서 온 퀴즈’ 등을 진행하면서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각각 와인과 1990년대 말 대중문화 이슈를 주제로 하는 토크쇼이다.  
 이전 프로그램에서 주로 보조진행자로 힘을 보탤 때, 이번에는 메인 진행자로 프로그램의 중심을 잡고 있다. 3년째 ‘유퀴즈’에서 함께하는 유재석의 응원도 든든하다. ‘별에서 온 퀴즈’의 파트너인 개그맨 남창희는 “조세호의 성장이 확실하게 느껴질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황광희도 파죽지세다. 현재 방영 중인 MBC ‘아무튼 출근!’에 이어 10일부터 방송을 시작하는 채널A ‘레전드 음악교실-탈라랜드’, 이달 중 방송하는 KBS 2TV



이용진

조세호

황광희

‘팻비타민2’ 등에 출연한다. EBS 유튜브 콘텐츠 ‘딩동대대학교’도 새롭게 맡았다.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패기와 특독 특주는 입담을 내세운 성과다.  
 패널 출연자로 주목받아온 그는 이제 진행자 자리로까지 발돋움했다. ‘아무튼 출근!’의 김구라, ‘탈라랜드’의 신동엽, ‘팻비타민2’의 박수홍 등 다양한 스타일의 배틀랑들과 호흡을 맞추며 경험을 쌓고 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